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해남·진도·영암군수

■ 해남군수



박희현 (61) 민주당



민화식 (66) 무소속

현직	해남군수	농업
학력	초당대학교 2년 휴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요경력	해남군의회의장	민선2기, 3기 해남군수
병역	보충역 제대	일병제대(귀휴대학생)
재산	약 12억원	6억2천324만3천원
주요공약 (3가지)	-경제가 모든 것의 중심인 해남 -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해남 -건강하고 투명한 행정	-유통공기업 설립, 중소기업유치 -노인복지관 권역별 건립,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군정혁신단 등 운영, 맞춤형정구현

■ 진도군수



박연수 (57) 우리당



김경부 (66) 민주당



김상헌 (47) 무소속

현직	정치인	진도군수	자영업
학력	조선대 법학과	진도농고	조선대학교 대학원
주요경력	진도군 부군수	목포경찰서장	전라남도회의의원
병역	육군 이병 소집해제	공군 3년 만기제대	병장 만기 제대
재산	2억1천36만원	19억329만2천원	15억8천56만3천원
주요공약 (3가지)	-선진 농·어업군 만들기 -공직공직화 기간산업 기틀 마련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화	-노인, 장애인, 인재육성 기금시책 -농어업 활성화와 소득 향상 -신재생에너지개발로 생산원가 부담의 최소화와 관광자원 개발	-고려조선소 지방산단지정, 농공단지 활성화 -진도유통중생기창 설립 농수산물 판로개척 -유통산방 등 운영권 민간이양, 문화 예술 자생력 강화

■ 영암군수



김일태 (61) 우리당



장경택 (58) 민주당

현직	정당인	정당인
학력	관주대 법정학부	광주대 상경대학원
주요경력	새천년민주당 국정자문위원	남해화학 대표이사
병역	병장 만기 제대	제2국민역
재산	11억4천551만7천원	약 5억원
주요공약 (3가지)	-소득증대기여의 관광과 농업 -삶의 질 향상의 복지와 도시 -미래도전 지향의 교육과 행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농업 중심의 산업개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검증된 군수’ ‘경륜과 덕망’ 민주당-무소속 치열한 승부

■ 해남군수

해남군은 현직 군수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1년6개월여 전 보궐선거가 치러져 박희현 현 군수가 군정을 맡아오고 있는 곳이다. 당시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다 실패한 민화식 전 군수가 무소속 후보로 되돌아와 도전장을 던졌다.

박희현 종합스포츠타운·조선산업집적단지 확대 민화식 혁신행정 구현·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

정을 수습,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자부의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용평가에서 A 등급을 받고 ▲보건복지부 시행 군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국가균형발전협의회의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사례 발표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행자부 오지개발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군정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임 군수 때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 22개 시군 중 21위였으나 지난해에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깨끗한 군정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우슬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초과 달성 ▲겨울배추 절임가공 공장 예산 확보 ▲대하조선소 유치라는 결실을 거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나아가 민선 4기에는 우슬체육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조선산업 집적화단지 확대, 노후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설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기했다.

민 후보는 '그래도 민화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그는 "군정을

혼란시킨 책임자로서 1년 반 동안 표류하는 군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위기의 해남을 기회의 해남으로 바꾸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군수직은 연습하며 배워가는 자리"라며 "40여년간 전남도 및 중앙행정부처 근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협의회장을 거치면서 쌓아온 풍부한 인맥을 해남 제2도약의 밑거름을 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4기 동안 해야 할 공약으로 ▲장단지 발전계획 수립 ▲혁신행정 구현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 ▲군 주도 농업직불제 시행 ▲동계전지 훈련의 메카 조성 ▲해남김과 빨전복 전국적 브랜드화 등을 내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남=박정욱기자 jopark@kwangju.co.kr

침체 지역경제 살리기 고령화사회 비전 제시

■ 진도군수

예향 진도에는 민주당 김경부, 열린우리당 박연수 후보 외에 무소속으로 김상헌 후보가 군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또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동진 후보가 호시탐탐 출마를 노리고 있다.

현 군수인 민주당 김경부 후보는 장흥·고흥·목포경찰서장을 지낸 경륜 간부 출신으로

박연수 웰빙농산물 특구·국제화물항 유치 김경부 '노인 공경군'·진도개 세계화 성과 김상헌 유통공사 설립 농수산물 판로 개척

20년 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전국 최초로 '노인공경군'을 선포하고 200만이던 관광객을 50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진도개의 세계화를 이룩했다"며 "또 관광수용 태세 확립 시범군으로 지정을 받은 한편 고려조선소와 조력발전소 유치, 충무공 이순신 역사공원 착공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했다.

그는 나아가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완성, 팽목연안항 개발 사업 완료, 금골-대교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시행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반드시 이룩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박연수 후보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5년, 행정자치부 18년, 진도

부군수 4년 등 27년간 행정 관료로 지내며 경력과 인맥을 쌓아왔다. 그는 "지난 2002년 민주당 입당 후 4년 동안 군수선거를 준비해 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4기 군수가 되면 세계적 웰빙농산물 생산특구 조성 및 획기적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팽목항 조기 착공, 벽과 국제화물항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군

립 타카시설 운영과 인재육성기금 50억원 조성 등 주민 복지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상헌 후보는 40대의 사업가로 패기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진도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은 순수한 토박이임을 자랑하며 "자식들이 돌아오는 진도군"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지역상권 이용하기' 군민운동을 전개, 지역상권을 회복하겠다"며 "또 진도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진도유통공사를 설립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농수산물 직판점을 운영한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지역 참일꾼’ ‘CEO 군수’ 우리당-민주당 후보 2파전

■ 영암군수

민선 2~3기의 김철호 현 군수가 건강을 이유로 불출마를 하면서 영암군수를 놓고 열린우리당 김일태 후보와 민주당 장경택 후보간 2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 후보는 영암군 변영회장 9년, 영암군 산악회 부회장 6년, 전남도 2~3대 교육위원 등 영암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특목고 신설 및 고등학교 내 선박특수와 설치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장경택 후보는 '더 잘사는 영암, 농업 경영인 군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가난한 농촌 집안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농협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축산물 유통을 배웠고 남해화학을 경영하며 CEO(최고경영자)로서 자질을 쌓아왔다.

김일태 친환경 대체작물 개발·교육환경 개선 장경택 농업산업·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정치 지방생이다. 그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김철호 군수와 대결을 펼쳐 46%의 득표율을 얻는 등 선전했으나 석패했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지역관리를 하면서 지방선거 재출마의 기회를 노려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영암의 450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 마을의 숙원사업, 면 단위 성장전략, 군 전체의 발전계획 등을 그때그때 요약, 기록하며 미래를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군수 선거에 출마했다"는 김 후보는 "농업은 대학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농업과 대체작물 개발을 통해 소득있는 농촌을 만들고, 상호에

그는 또 농협 전남본부장 시절 '전남쌀 브랜드화' 공적으로 인준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농협 내에서 우수경영자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남해화학 경영 시에는 400억 적자의 위기를 극복, 취임 1년 만에 100억 흑자 경영을 이끌었다. 장 후보는 "맥반석 덩어리인 월출산을 건국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 천황사지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전국 인삼경매시장을 영암에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도농 교류 및 생태마을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발 등으로 희망의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암=김한민기자 hnmkim@kwangju.co.kr

S&S & 블루채리 창립 12주년 기념 특별전

▶ 행사기간 ▶ 4월 28일 - 5월 21일

사무용 의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침대

침대

매트리스

침대

침대

매트리스

침대